

한라포커스 운명의 시간 맞는 제주4·3특별법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 운명 결론

패스트트랙 대치 속 4·3특별법 개정안 논의 주목
본회의 의결까진 어려워도 논의 이뤄져야 '희망'
제정 당시 피해구제 미포함... 전향적 자세 절실

70년 한을 품고 살아온 제주 4·3희생자 유족들의 간절한 눈길이 정기국회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는 최종 일주일이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는 어렵더라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야 개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 유족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국회가 응답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0년 전 제정된 특별법엔 피해구제 포함안돼... 지연된 정의=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2년 전인 2017년 12월 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통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발의됐다. 제

주4·3은 1947년 3·1절 발표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지금에서야 희생자 배보상을 요구하게 된 것은 20년 전인 1999년 특별법 제정 당시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령사업이나 의료·생활 지원금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방안과 불법 군사재판 판결의 무효화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았다. 2003년 진상보고서를 채택한 뒤에도 16년이 흘러 피해구제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주4·3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구제까지 지

난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4·3특별법의 명예회복은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의 국제와 피해회복 수준에 한참 미달한다. 이제는 상징적인 배상(기념공원)을 위주로 한 신원모형에서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과 정의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4·3법안 논의 가능성은? 4·3의 완전한 해결의 핵심인 배보상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인지 국회의 법안 심의는 지지부진하다. 유족들은 법안 심의가 난항을 이어가자 수 차례 국회를 찾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반 년 넘게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최근 국회가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도 그때마다 4·3특별법은 안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쌓아둔 속제를 하느라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측되는 4·3 관련 논의는 미루고 있는 분위기다. 그마저도 패스트트랙(우선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면서 법안 심의에는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재의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4·3희생자 유족회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여야 대치정국이 해소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 할 것 없이 4·3의 완전한 해결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피해 구제를 위해 국회가 법 개정

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국회=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시설공단 조례안 도의회서 '제동'

행자위, 정례회서 심사보류... 인력·예산구조 질타
ICC 개인 주식 매입·지식산업센터 매입도 심사보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단 설립이 정례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달 예정된 임시회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가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달 29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의원들은 시설 공단의 인력 문제와 재정 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읍)은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384명의 제주자치도 공무원으로 전직시켜야 하지만 정작 전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9%에 불과하다"면서

"전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롭게 채용을 진행할 경우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지사는 괜찮겠지만 차기 도지사는 설거지를 넘어 폭탄을 맞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주도는 환경시설·주차·상하수도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 시설공단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하지만 정작 시설을 확정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거면 왜 공단을 설립하나"라고 비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면에 계속

"4·3특별법 연내 통과 노력"

李 총리, 4·3관계자들과 간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국회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낮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송승문 4·3유족회장과 장정인 고문,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4·3실무부 부위원장, 이규배 4·3연구소 이사장 등 4·3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약속했다.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 총리는 12월 교체설을 의식해서인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임기내 통과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겨울의 초입... 무밭에 내린 서리 어느새 제주 중산간은 겨울의 초입이다. 지난달 30일 새벽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무밭에 하얀 서리가 내려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양조훈 이사장과 송승문 유족회장 등은 "연로하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4·3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행안부와 기재

부 등 정부부처가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총리께서 직접 챙겨달라"고 건의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알림

꽃피는 새봄 같은 문학을 기다립니다

2020 한라일보 신춘문예

한라일보가 30년을 걸어오는 동안 결어는 늘 문학이 있었습니다. 한라일보 신춘문예 덕분입니다. 다시, 새봄을 맞이하는 문학을 기다립니다. 시, 시조, 단편소설 3개 부문에 걸쳐 2020한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문학을 꿈꾸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모집 부문 및 상금
 - 시 :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료 300만원(※3편 이상 5편 이내)
 - 시조 :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료 300만원(※3편 이상 5편 이내)
 - 단편소설 :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료 500만원(※200자 원고지 기준 80-100장)
- 마감 : 12월 13일(금)까지(당일 도착 우편물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63185)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교육문화체육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 당선작 발표 : 2020년 1월 1일자 한라일보 지면

[안내사항]

가. 모든 응모작품은 어떤 형태로든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원고를 다른 신춘문예에 중복 투고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면 당선은 취소됩니다.

다. 결봉후에 '신춘문예 응모작 ○'부분이라고 적어주시고, 원고 끝에는 이름(본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집이나 직장전화)를 써주세요.

라. 당선작이 없을 경우 해당 교료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을 발송합니다.

※문의 : 한라일보 교육문화체육부 (064)750-2235

다문화시대

다양성이 존중되는 제주 만들기

글로벌 다문화학교 체험교실 & 제주탐방

서로 다른 두 문화 사이에 살아가면서 올 수 있는 정체성 혼란을 해소하고, 비슷한 환경의 또래 친구들을 만나 교류함으로써 자긍심과 자존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글로벌 다문화학교 체험교실 & 제주탐방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제주도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부모 동반 가능)
- 날짜 : 2019년 12월 7일 & 12월 14일 총 2회
- 인원 : 선착순 100명
- 참가비 : 무료
- 주최 : 제주매일
- 주관 : 제주매일·제주YWCA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 064-742-4500 제주매일 사업부 문지영

■ 제주탐방 일정

글로벌 다문화학교 제주탐방 I 12/07(토)		글로벌 다문화학교 제주탐방 II 12/14(토)	
~09:30	제주시 한라체육관 주차장 집결	~09:05	제주시 한라체육관 주차장 집결
09:30~10:30	이동	~09:30	제주시 한라수목원 주차장 집결
10:30~11:40	민거니말거나 박물관 관람	~10:00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 집결
11:40~12:00	집결 및 이동	10:00~12:00	이동
12:00~14:20	서귀포시 부영 청소년수련원 - 점심 식사 - 레크리에이션	12:00~12:3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센터 - 견학 & 만들기 체험 및 시식 (피자·스파게티·아이스크림)
14:20~14:40	이동	12:30~16:00	항공우주박물관 - 탐방 및 카드제작 - 레크리에이션 및 기념촬영 - 저녁식사(구내식당)
14:40~15:40	피규어뮤지엄 관람	16:00~	해산
15:40~	해산		

※상기일정 및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제주매일** 주관 **YWCA 제주 YWCA** 후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